

청소년, 담배, 그리고 인권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흡연을 둘러싼 문제들을 어떻게 말할까?

2016년 6월 18일 토요일 오후2시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

발제 : 츠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루트 (인권교육센터 들)



이야기 소개 : 청소년과 담배

청소년의 흡연은 '나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정보법)>에 의해 담배를 판매, 제공받을 수 없고, 학교에 담배를 피운 걸 들리면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하게는 흡연 혐의를 받고 소지품 검사에 불응해도 흡연으로 처벌받는다.

흡연 청소년은 흡연 사실만으로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지어지고,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걸 들리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담배냐"라거나 "벌써부터 피우면 몸 상한다." 같은 소리를 듣는다.

또, 비청소년이 흡연을 하고 있던 청소년에게 훈육을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도 청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비청소년은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울 때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을 찾거나, 여러 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기도 한다.

청소년운동에선 정보법을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며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청소년의 흡연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정보법에선 청소년의 담배 구매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게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것은 법에서 청소년이 법적 주체(행위의 주체와 처벌의 대상)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 결코 청소년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법률은 청소년을 그저 수동적인 보호대상, 자기 판단능력이 없는 무지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법률과 제도, 사회적 인식 등을 통해 손쉽게 행동을 규제당하고 낙인지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청소년보다 소수자의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청소년의 행동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청소년의 행동은 하나하나 교정하고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비청소년이 청소년을 보다 쉽게 재단하고 혐오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논리와 정책을 더욱 공고히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청소년활동가들 사이에서 있어왔고, 은연중에 공유돼왔지만 달리 얘기/정리가 되지 않았었다. 오늘 간담회에선 시간상 위의 얘기에 대해 정리하지는 못하고, 그동안 얘기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한다. 위의 얘기는 뒤에서 이어지는 글들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읽기자료로 첨부한 글들은 그 동안 청소년의 행동(특히 흡연을 중심으로)에 대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낙인찍는 것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 왔던 이들의 글이다. 이 글들은 청소년보호법의 자기결정권 침해, 보호주의적 논리에 대한 반박, 규제/처벌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흡연하는 청소년으로써 겪는 여러 고충과 경험을 나누는 글 등을 찾아 실은 것이다.

[미성숙 폭동] 너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어서 이러는구나?1)

쥬리

2013년 05월 22일

날씨가 따뜻해지고, 초여름인 것처럼 더워졌다. 6월 초쯤엔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나는 만으로 열여덟 해를 살았는데, 퀴어문화축제는 올해 열네 번째로 진행된다고 한다. 올해 내가 축제에 참여한다면 세 번째로 참여하는 셈이 된다.

우리는 왜?

열일곱 여름, 처음 서울에서 독립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되었던 때, 퀴어퍼레이드에도 처음 참가했었다. 청소년 성소수자 부스를 꾸리는 팀에 들어가 부스를 기획했기 때문에 퍼레이드 날에도 부스를 함께 담당했다. 초저녁쯤 퍼레이드가 끝이 났을 때, 애프터파티가 진행된다는 공지를 들었다. 애프터파티에 참여할 기대에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던 중, 누군가 말해주었다. 청소년은 애프터파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다른 비청소년들과 같이 나도 부스를 꾸렸으니 이 축제에 일조한 것이 있는 셈인데, 청소년이라 파티에 참여하지 못한다니 기분이 좀 나빴다.

이후에 다른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들으니 자기는 파티에 참여했다고 했다. 내가 “청소년은 못 들어간단데?”라고 묻자 그 사람은 신분증을 검사하던 담당자가 자신이란 안면이 있는 활동가여서 눈감아주었다고 답했다.

다음 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에서 퀴어퍼레이드가 끝난 후 청소년들도 파티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이야기를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의 어느 활동가와 나누다,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파티를 퀴어문화축제가 지원하는 ‘스페셜 이벤트’사업으로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에서 주최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파티 준비를 시작했고, 퀴어문화축제에서 소개해준 홍대 부근의 레즈비언 클럽 사장과 미팅을 했다.

파티를 열 클럽의 사장을 만나러 가기 전이면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활동가들은 우리 착한 청소년처럼 보여야 해, 라고 서로에게 말하곤 했다. 우리 같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에 대한 낙인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소 대여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우리는 청소년이 들어올 수 있는 파티라고 열었는데 ‘성인 전용’파티와는 다르게 술도 없고 담배도 못 피우는, 그런 파티를 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린 우리가 전혀 공격적이지 않고 이른바 ‘날라리’ 청소년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사장을 안심시켜 협상에 유리한 지점을 얻고자 했다. 우리가 사회에서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금지해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책임지고 파티를 잘 진행할 테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난 일부러 흡연을 참고 담배냄새를 없앤 후 사장을 만나러 가곤 했다.

우리의 노력 덕분인지 클럽 사장은 익일 1시까지 개장하고, 알코올이 적게 들어간 칵테일을 판매하는 것까지는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우리는 기뻐하고 있었는데, 퀴어문화축제 파티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적인 문제와 사회 인식이라는 문제들이 있어 술과 담배가 허용되는

1) 인권오름, <http://hr-oreum.net/article.php?id=2384>

파티라면 퀴어문화축제가 지원하기 어렵다고 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에서 긴급회의를 몇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당시 우리는 갓 만들어진 모임이라 재정도 전혀 없었고, 주변에 후원을 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성인전용 파티는 술과 담배로 흥겹게 밤을 지새울 텐데,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모든 것이 금지되는 파티가 과연 청소년이 들어올 수는 있다는 것만으로 청소년인권운동으로서 대안이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왜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는가?

나는 열다섯 때부터 술을 마셨다. 열여섯 즈음, 청소년들이 기획하는 인문학강좌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획단원으로 들어갔었다. 기획단원들은 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열아홉 살인 사람들이었고, 뒤풀이를 할 때면 슈퍼에서 술을 사와 함께 사무실에서 마셨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고 그들이 스무 살이 되자, 갑자기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는 갈 수 없었고, 끼려고 해도 나와 함께 가면 '똥리는' 술집을 찾아 삼 만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눈치가 보였다. 그들은 갑자기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네, 섹스하고 싶구나?'라고만 알아듣고, 청소년의 인권을 이야기하다보면 '너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혹은 '술이랑 담배가 그렇게 청소년 인권에 중요한 거야?'라는 말을 듣는다. 뭐 이런 말들이 꼭 틀린 것도, 그렇다고 꼭 정확한 것도 아니다. 청소년들 중에서도 눈치 안 보고 섹스할 수 있는 권리가 매우 중요한 사람도 있고, 술 담배 사는 게 가장 절실한 청소년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섹스, 술, 담배 등 어른들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지만, 섹스와 술과 담배가 청소년의 인권에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른들은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은 못 하는 것들을 만들어놓는 건 결국 청소년이 사회 참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 어른들이 좀 참고 술을 마시는 대신 차를 마시며 청소년들과 뒤풀이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과도기적 대안일 수 있기에, 많은 운동단체에서 청소년과 함께 뒤풀이를 하기 위해 이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많은 경우 비청소년들이 만나고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장소는 술집이고, 사실 음주가 빠지는 친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배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분리하고 청소년을 주류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상은, 청소년에게만 술과 담배가 금지되는 실태와 어느 정도 맞물려 있어 단순히 유흥문화 또는 뒤풀이문화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물론 어떨 땐 술 자체가 마시고 싶기도 하고, 담배도 단지 니코틴이 그리워 피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할 때 꼭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담배를 피울 때 단지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교하고 친목하고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하면 건강에 안 좋아, 와 같은 핑계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절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 필수적이다. 내가 비청소년들과 함께 술집에 가려 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하며 술집에서 나를 밀어내면 단지 술을 못 마셔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은 함께하려 해도 나 때문에 자리를 옮기며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서러웠다.

열일곱, 한 운동단체에서 행사를 마치고 함께 뒤풀이 자리로 이동하는데 나와 내 또래들에

게 뒤풀이 자리에 오지 말라는 문자가 온 적이 있었다. 허탈해서 그 술집 앞에 앉아 담배나 뽕뽕 피우고 있는데 다행히 그 단체의 다른 비청소년 활동가의 문제제기로 술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날 그 술집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공유했던 경험들, 쌓았던 친목, 그런 것들은 분명 소중했다. 다른 사람들도 만약 자신의 어떤 특성 때문에 뒤풀이 자리에, 친목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분명 내가 청소년이라 느꼈던 만큼의 서러움을 느낄 것이다.

어떤, 작은 순간들

나는 이제 열아홉, 곧 스무 살이 된다. 그리고 사실 물어보아서 그런지 근 일 년 동안은 신분증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손에 꼽을 정도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술집을 출입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다른 청소년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뒤풀이 장소를 술집으로 가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가끔 술집 문턱에 선 그분들의 긴장된 얼굴과, '뚫릴까? 안 뚫릴까?' 하는 표정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다. 사실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긴장들, 이런 서럽고 상처받는 작은 순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인 것 같다. 스무 살이 되어 법적으로 청소년이 아니게 된다 해도, 이런 작은 순간 하나하나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2)

-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주리

2014년 03월 26일

1991년 한국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위 협약은 만 18세 이하의 인간들에게 차별과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표현과 집회 및 결사, 모임의 자유, 교육과 건강,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협약의 서론에는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 선언의 기초적 정신이라는 점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 아동이 정말로, 어느 정도로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냐는 문제는 차치하 고서라도,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가 당사자들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정책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부정하고 배제하는 가장 큰 근거로 활용되는 현 한국 사회의 실태를 고려할 때, 이 보호받을 권리를 어떻게 재해석하며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쟁점이자 고민거리로 지속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권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 | |
|---------------------------------------------------------------------------------------------------------------------------------------------------------------------------------|
| 1)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들의 이용이나 노동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를 금지하는 것.
2)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위해 교육목적상의 권리 제한을 허용
3)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건강, 여가, 생존을 위한 복지
4) 친권자의 양육 의무와 친권자의 보호 아래 있을 미성년자의 의무 |
|---------------------------------------------------------------------------------------------------------------------------------------------------------------------------------|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권리'를 위한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이들을 미성숙하고 결정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여타의 권리 제한이 있다.

- | |
|------------------------------------------------------------|
|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운동 등 정치적 권리의 제한
2) 금전과 관련한 법률행위 권한의 제한 |
|------------------------------------------------------------|

이 중에서도 이 글은 비청소년에게는 허용되나 청소년에게는 금지되는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보호 정책인, 성적인 매체와 숙박시설, 술과 담배 이용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 제한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유해매체

청소년보호법 제9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 | |
|------------------------------------------------------------------------------------------------------------------------------|
|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

2) 인권오름, <http://hr-oreum.net/article.php?id=2655>

- | |
|---------------------------------------------------------------------------------------------------------------------------------------------------|
|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

청소년유해매체로 선정된 영화, 방송, 책 등의 매체는 판매할 때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곳에 광고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채로 진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그것이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는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가의 여부이기 때문에, 어떤 매체가 청소년유해매체로 등록되느냐는 이 사회가 특정 소재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일례로 청소년보호법에는 동성애가 유해매체의 판별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소수자인권운동의 결과로 삭제되었으며,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친구사이?'는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15세 이상관람가로 등급이 바뀌었다.

사실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소재나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공적으로 드러나도 된다고 여기는 것들만 다르면 청소년이 접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되지만, 그 기준을 넘으면 청소년유해매체가 될 뿐이다. 성인들에게는 유해한 것들을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모방하지 않을 판단력이 있지만, 청소년에게는 없다는 전제가 이런 정책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섹스와 범죄, 반체제와 여타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룬 매체는 마냥 건전하고 '공익적'인 매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쾌락과 드러내지 못하는 진실을 내포한다.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고 광고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는 계속해서 생산되고 소비되며, 기실 청소년들도 다른 경로들을 통해 이용한다.

숙박업소

청소년의 모텔, 찜질방, 고시원 등 숙박업소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청소년이 친권자 등 보호자들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인 하루 혹은 삶을 살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에는 친권자의 권한 중 미성년자의 '거소를 지정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이유로 집을 나와 가출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려고 할 때조차 친권자에게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일이 발생한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섹스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모텔, 호텔, 펜션 등이고, 집이 아닌 다른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섹스 때문이다. 보통 부모님의 집에 얹혀살게 되는 대다수 청소년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들이야말로 독립적으로 이용할 제2의 공간의 필요가 절실한 집단이지만, 청소년에게 (친권자의 동의 없이)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모텔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소년 커플들이 룸카페를 대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알려지자, 최근엔 룸카페도 19금이 되었다(룸카페는 대체로 문을 잠글 수 없는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카페이고, 일부는 침대나 샤워시설도 있다고 전해진다).

술과 담배

술과 담배는 건강에 유해하며 금지된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보통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탈'이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기타 여러 신분에 따라

이 일탈이 다소 허용되는 집단과 허용되지 않는 집단들이 있다. 어떤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뉘는 건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부는 술과 담배에 높은 세금을 매겨서 재정을 충당하면서도, 술과 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금주, 금연을 독려하는 캠페인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금주와 금연이 절제와 청결의 이미지와 함께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술과 담배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답답해하거나 무리에 끼워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술과 담배를 하는 데 필요한 갖가지 예절(윗사람에게는 두 손으로 술 따르기, 고개 돌려 술 마시기, 윗사람과 맞담배 하지 않기, 윗사람이 라이터로 불붙여주면 손으로 가려서 받기)이 생겨나고, 술과 담배를 함께 한다는 것이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코스가 된다. 그런데 술과 담배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 '우리'끼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아랫사람이 내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는 건 내 권위에 대한 무시이고, 꼴 보기 싫은 일이 된다. 나이 많은 남성이 길에서 흡연하는 여성이나 청소년에게, 작게는 눈치를 주고 훈계를 하거나 크게는 폭행을 하는 사건은 이 맥락에서 발생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과 담배 판매의 금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유해하고, 청소년은 특히 신체적으로 미숙하므로 건강에 더 유해하며 정신적으로도 미숙하여 절제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부나 어른들은 유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건강에 유해한 것을 차단함으로써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실제로는 술 담배 하는 청소년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호'와 '분할 통치' 중 무엇이 진짜 목적인지 헷갈리게 한다.

한국 중고등학교 중 절대 다수의 학교에선 음주와 흡연을 교칙으로 금지하며-법적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를 금지하지만 교칙에서는 청소년의 '이용'을 처벌한다.-모범생과 날라리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한다. 2011년에는 남양주 가운고등학교에서 흡연을 이유로 무려 40여 명을 무더기 퇴학 조치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음주나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점을 받고 체벌(폭행)을 당하는 일은 구태여 말할 이유도 없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다음은 서울 J여자고등학교의 학생이 증언한 내용이다.

“한 친구가 담배 피우는 걸 교사에게 걸렸다. 흡연으로 몇 번 걸린 적이 있는 친구였다. 교사가 그 친구를 불러서 같이 피우는 사람들 이름을 대라고 했다. 친구도 처음에는 입을 닫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이름을 대라고 붙잡아두니까 결국 같이 흡연하던 친구들 이름을 뱐다. 그 이름 중에 내 이름이 있었고, 그래서 교사가 내가 흡연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를 포함하여 이름이 불린 몇몇이 학생부실로 불러갔고 교사가 가방검사를 했다. 여자 교사가 와서 옷 안도 뒤지고, 스타킹, 주머니 다 뒤지고 그래서 결국 담배가 있는 걸 들켰다. 그것 때문에 처음 걸려서 징계를 받았고 1주일 교내 봉사를 했다. 1주일 동안 학교에 일찍 가서 교문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맙시다, 고운 말 씀시다,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흡연으로 시커메진 폐를 보여주는 금연교육도 받았다.

2학년 올라가서, 건강검진을 했다.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키 재고, 피 뽑고, 소변 검사 하고, 엑스레이 찍고 하는 검진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고 교사가 나와 몇몇 사람들을 불렀다. 건강검진 결과 우리에게서 흡연했던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다. 교사들은 건강검진에서 흡연한다고 나온 학생들을 따로 관리했다. 종종 불시에 교실에서 복장, 용모검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오른 학생들은 소지품 검사도 했다. 그러다 또 걸려서 징계를 받았다. 처음 흡연으로 걸리면 교내 봉사 1주일에 금연교육 2시간, 두 번째 걸리면 교내봉사도 하고 교외봉사에도 금연교

육 6시간, 세 번째는 교내봉사와 교외봉사에다 금연교육 14시간, 네 번째부터는 정확이다.”

이쯤 되면, 그렇게 주창되는 보호가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인지 되묻게 될 것이다. 더불어서, 그렇게 겹겹이 쌓인 규제와 감시망을 뚫고서라도 기어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야 마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분명 존재하는데 규제로 일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술과 담배에 얽힌 권력과 일탈, 전복의 상징적 의미들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활용하면서, 짐짓 '다 너희 건강을 위해서야'라고 변명하는 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담배 피우는 여자애³⁾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2014년 09월 30일

‘어린애들이 담배 피우는 걸 줄일 수 있다는데 고작 주머니에서 푼돈 나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담뱃값 인상이 그저 증세를 위한 꼼수임이 간파될까봐 준비한 카드였을까.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반대로에 상당한 도덕적 부담을 안겨주는 모양이다. 한 일간지는 교복을 입고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도 학교마저 손 놓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스리슬쩍 들이밀기도 했다.

문제의 대상은 ‘욕망하는 청소년’

한때 지적 고뇌와 청춘의 저항을 상징하기도 했던 흡연이 이제 ‘문화적 루저(loser)’의 표지가 되어버린 시대가 왔다. 이는 남성 비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담배 피우는 여성과 청소년은 한 번도 도덕적 비난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담배와 여성 청소년의 조합에는 ‘그렇고 그런 여자애’라는 더 강력한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 최근 ‘부천 아이유’라 주목받던 한 여성 청소년이 흡연과 음주 전력이 입방아에 오르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한 일이 있었다. 학교의 통제는 더욱 강력하다. 담배나 라이터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고 3~5회 적발 시 퇴학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한다. 얼마 전 흡연 문제로 교사에게 괴롭힘(교사는 ‘지도’라 말했다)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마저 있었다. 담배는 누구에게나 유해한데 왜 유독 청소년에게만 도덕적 비난까지 덧씌울까. 간접흡연 문제를 제외하면 타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든 행위에 대해 학습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가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흡연 자체가 아니라, 의무의 족쇄에 갇혀 있어야 할 청소년이 ‘감히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것’을 처벌하고픈 건 아닌가. 특히 정부가 청소년 흡연에 예민한 이유는 청소년 개개인의 건강보다 훼손된 몸이 불러올 사회적 비용과 관련돼 있다.

내가 만나본 청소년들은 사회적 비난과 가난한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기로 흡연을 선택했고 복합적 삶의 맥락 속에서 흡연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저 어른 흉내를 내고 싶어서도 아니고, ‘센 척’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호기심에 손댔다가 이내 중독이 되어버린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불량해서가 아니다. 학생은 대표적 감정노동자다. 성적에 대한 항시적 압박 속에 지루한 공부를 견뎌야 하고 교사의 심기를 덜 건드릴 자세까지 고민하며 줄아야 할 만큼 눈치 백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들에게 담배는 짧은 시간 내에 감정 회복을 도와주는 약물이었다. 콜센터나 백화점 화장품 코너 등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의 흡연율이 높은 까닭과 같다. 화려한 쇼핑가 뒷골목에서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청소년 알바들이 담배 몇 모금 빨아들이고선 황급히 돌아서는 장면을 쉽사리 볼 수 있다. 누구를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찰나의 순간이다. 호된 시집살이, 남편 뒷바라지에 지친 아낙들에게 아궁이 앞에서 몰래 담배 피우던 시간이 유일하게 허락된 혼자만의 시간이었던 것과 유사하다. 가족의 파탄을 속절없이 지켜보아야 했던 어떤 청소년에게 담배는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한 위안이었다. 가부장적 통제에 지친 여성 청소년이 꼬나무는 담배에는 사회가 부여한 소녀상을 거부하는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거리 청소년에게 담배는 당연한 유약함과 절박한 사정을 감추기 위한 위장의 도구였

3)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002.html

다. 어떤 이들은 담배 피우는 이들끼리 형성되는 유대감 덕분에 잠시라도 세상이 덜 외로웠다고 고백한다.

담배 함부로 차지 말라

피우는 것은 메시지다. 흡연에는 '습관'을 넘어 그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하기에 담배를 둘러싼 삶의 맥락과 감정의 서사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금연의 당위성만 역설하는 것은 어리석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가 주던 위안조차 살 수 없는 청소년들은 무엇을 또 선택할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당신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담배 함부로 차지 마라. 이 사회와 교육은 청소년에게 한 번이라도 담배만큼의 위안을 준 적 있었던가.

[페미니즘 인(in) 걸] 마냥 '시크한 차도녀'가 될 수 없는 '10대 여성', 나의 담배 연기4)

윤티

2011년 01월 12일

1월 1일이 되었다. 집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러 드디어 '합법적으로' 담배를 사고 한 대 피웠다. 새해 추운바람이 싫어 집에 들어갔다. 아, 니코틴이 부족해. 방에 들어가서 삐거덕 거리는 창문을 조심스레 두 손으로 열었다. 마침 서랍에 성냥이 있어서 불을 쉽게 붙였다. 천천히 담배를 음미할 새도 없이 누군가 화장실 가는 소리에 불을 끈다. 서둘러 페브리즈를 온몸에 뿌리고 부엌에서 태연히 물을 마시고 안방으로 향한다. '다행히도' 아빠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들키지는 않았을 거다.

2년 전쯤이었나. 이사 오고 나서 드디어 내 방이 생겼다. 뽀뽀뽀뽀 흰 연기들로 내 방 인증을 하고 서랍 속 필통에는 콩초가 쌓여갔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엄마한테 콩무니가 잡혔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한테 '고자질'하지도 않고 쉬쉬했다. 아빠한테 내 흉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엄마일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엄마는 항상 '아빠랑 맛담배라도 피겠다는 거야?'라고 화냈다. 그전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해보고 싶기도 하다. 물론 그 후, 아빠한테도 걸렸다(나의 덜렁증). 아쉽게도 맛담배는 아직 이다.

담배를 핀 지 이제 6년쯤 되었나? 지금은 몇 살이냐고? 올해로 이제 20살이 되었다. 여태껏 담배에 대한 고민이라곤 '담배 뭐가 새로 나왔지?', '돈 없어서 금연하게 생겼네…….' 정도 였는데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한다. 내가 10대이자 여성으로 그 모진 시련들을 겪었지만, 여전히 담배에 불붙이고 있는 이유를.

안방에 있던 아빠 담배를 몰래 핀 것이 처음인지, 친구가 물려 준 말보루 레드의 숨 막히게 무겁던 연기가 처음이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어느 특별한 이유,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있어서 담배를 처음 물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독이라 말할 수는 없는 정도로 지금까지 피오고 있다. 내가 겪은 '모진 시련'은 아마도 학교를 자퇴한 후부터였을 거다. 자퇴를 한 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데 사람들이 내 흡연에 대해 걱정(?)해주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나를 보고 머나먼, 아님 영원토록 없을 뱃속아이 걱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엄마아빠가 날 어떻게 키웠을지 까지 걱정해주신다. 참 감사하지만, 죄송하게도 난 싫다.

내 주위 여자 친구들은 대부분 담배를 핀다. 그리고 그 중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오히려 남자애들은 담배 피는 것이 허세였지만, 우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던 것 같다. 물론 그래서 좋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남자애들은 허세가 될 수 있고, 여자애들은 처음 소개팅 나갈 때는 '예의상'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걸까? 좀 새어나가는 이야기이지만, '내 몸을 지키자'는 말이 왜 여자한테 더 잘 어울리는 말이 된 걸까? 학교를 다녔을 때에도 '폐 검사(X-ray)해서 담배 핀 거 걸리면 어찌지' 하며 소리 내서 걱정하는 애들은 전부 남자였다. 난 물론 '똑똑해서', 그 검사로 흡연여부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여자애들도 나처럼 검사해도 걸리지 않는 걸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학교 안에서 여성흡연자는 볼 수가 없었다. 한 학년 중에 담배 퍼서 걸린 애들이 줄서서 단체로 벌서고 있을 때도 여자는 없었다. 뭔가 투명 인간 기분이다.

한 번은 친한 비흡연자 남자애들이랑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난 언제나 그랬든 자연스럽게

4) 인권오름, <http://hr-oreum.net/article.php?id=1661>

담배를 피는데 다들 놀란 표정으로 '너 담배 피워?'라고 묻는다. 그 다음으로 '내 주변에서 담배 피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라는 말이 이어졌다. 엉? 이상하다. 내 주변 여자들은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은데, 이 친구들 주변에는 담배 피는 여자가 나 하나라니. 물론 남자애들과 있을 때만 이리 불편한 건 아니다. 얼마 전엔 나보다 2살 많은 언니무리들과 같이 술을 마시는데 어색하고 할 말도 없어서 담배를 폈다. 그 언니들이 다 담배를 물고 있기도 했고, 같이 피웠던 적도 있어서 아무런 긴장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한 언니가 정색하더니 진지하게 '너 담배 그만 썬.'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뭐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피다가, 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한 대 때릴 것 같아서 아까운 담배를 껐다. 같이 술 마시고 있는데 담배는 안 된다니, 아이러니하다. 내가 아직 성인이 되기에는 며칠이 남아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담배가 뭐 길래?' 라는 질문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난 그렇게 담배 불을 끄고 나서, 그 언니가 담배를 피라 말라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는 담배를 다시 피고 싶어졌다. 그런 사람 앞이니까 더 담배가 당겼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일 때, 예를 들어 지하철 앞에서 남자들만 나란히 서서 담배 피고 있을 때, 담배가 간절히 생각난다. 내 몸에서 '니코틴이 필요해'라고 외쳐서 필 때와는 느낌이 다르다. 실제로 피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담배에 불을 붙인다. 담배를 피우면 느껴진다. 10대 여성인 내가 담배를 핀다는 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는 일이다. 그래서 가끔은 작은 반항 같다. 사람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이 본의 아니게 내가 담배를 질리지 않고 계속 피워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성 친구 중에 같이 담배 핀 지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다. 개랑 나랑 그리고 다른 흡연친구들 사이에서는 담배를 피울 때,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고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친구네 집에 놀러간 적이 있다. 나처럼 그 친구도 덜렁덜렁서인지 부모님한테 담배 피운 것을 들켰다. 그리고 혼나기도 했다. 그러나 나와 그 친구의 상황이 다른 건 개네 부모님은 그 친구 방에 재떨이를 놓아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 친구 말고도 다른 이성 친구 중에는 방에 재떨이가 있는 친구들이 꽤 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다른 여자 친구네 집들은 재떨이는커녕 매일 혼나고 또 혼날 뿐이다. 남자 애들 부모님만 쿨한 거라 보기에는 찝찝하고 억울하다.

다른 동네 친구들에 비해, 난 동네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빵(길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나도 동네에서 필 때는 나도 모르게 조심하는 것들이 있다.

1. 욕하면서 피지 말기
2. 침 뱉으면서 피지 말기
3. 탈색한 머리 숨기기
4. 양아치로 보이지 말기

1.2.3.4.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런 원칙을 세워 담배를 피우니 나 자신도 어이가 없다. '나는 착한아이니까 담배 썬도 되요'도 아니고 말이다. 나 말고도 '우리끼리'가 아닐 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자 친구들은 꽤 많다. 그 친구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도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담배 피우면 마이너스+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사실을. 분명 20살 넘어서 담배 썬도, 우리에게 담배 피우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람들은 많다. 다만 우리가 10대일 때 좀 더 확실히 '욕할 거리'가 생긴다. 담배 피울 때 '나 이도 어린것이'로 싸잡아 뭐라고 하시는 분들! 사람 골라가면서 뭐라 하지 말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죠. 물론 기왕이면 안 듣는 게 더 좋지만요.

담배가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안다. 그리고 이 글을 다 읽은 사람이라면 내가 흡연예찬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 챘으면 좋겠다. 난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리고 끊더라도 내 의지대로 끊을 거다. 언제부턴가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게 내 몸인지, 내 마음인지, 아님 내 이성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담배 피는 여성으로 존재하며, 이렇게 외치고 싶다. 머나먼 멋진 외국 차도녀(차가운 도시 여자)만 담배 피는 건 아니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기자칼럼] “흡연 청소년은 맞아도 싸다?” 이현호 청소년 폭행, 폭력이 훈계로 포장되다⁵⁾

이계은 기자
2013년 05월 13일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주장 이현호가 어제 12일 저녁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 중 A(17)양 등 여자 청소년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오히려 이씨의 폭행을 “흡연청소년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옹호했다.

오히려 이씨가 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부당하며 “십대 훈계 상 줘도 모자라다”고 그의 행동을 추켜세우는 등 격려와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마디로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훈계’라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 언론은 피해자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이씨에게 되려 “아이를 지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도 당사자인 피해자 청소년들의 입장은 경찰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진술한 “이씨가 다짜고짜 와서 우리를 때렸다”는 말만 짧게 전달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행태는 “맞아도 싸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셈이다.

결국 언론보도와 누리꾼들의 반응 어디에도 폭행당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입장은 없었다.

누리꾼들과 언론은 이씨의 행동이 ‘상식적인 훈계’라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하지만 과연 당사자인 피해자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이씨의 행동이 ‘훈계’라고 여겨졌을까? 우람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 자신들이 담배 피는 모습이 꼴사납다는 이유로 권력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여겨졌을 터다. 당연히 화가 났을 테고.

“훈계 차원의 폭력”은 어불성설이다. ‘훈계’라고 생각하는 건 단지 폭력이 훈계라고 ‘믿고 싶은’ 것 아닐까.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편한 대로 대화 아닌 폭력을 행사한 뒤에 “다 너를 위한 거야”라고 자위하는 폭력을 훈계로 포장하는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학교현장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사들의 체벌이 금지되어가는 마당에 이씨가 청소년들을 폭행한 행위는 ‘훈계’로 칭송받은 건 청소년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다. 설령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폭력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동물학대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며 인간중심을 넘어 동물인권에 대한 의식이 향상된 시대다.

이씨의 흡연 청소년 폭행을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그의 행동이 “용감하다”고까지 칭찬했다. 나는 이런 반응에서 평소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꼴사납다는 이유로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성인들의 욕구가 느껴진다. 청소년들에게 훈계랍시고 한 대 쥐어박고 싶었지만 ‘반항적인 눈빛의 무서운 아이들’에게 되려 응징당할까 두려워 뒤에서만 “요즘 것들” 욕하던 와중에 이씨의 폭행에서 대리만족을 느꼈을 터다.

성인이 청소년에게 훈계를 하고 싶다면 그들이 왜 담배를, 술을, 아파트 옥상을 찾는 건지 직접 묻거나 성찰하는 것이 먼저다. 기성세대가 청소년에게 빚진 것이 어디 한 둘인가. 청소년 학교폭력, 성적 비관 자살, 우울증... 이런 현상들이 오로지 청소년들이 ‘미성숙해서’ 벌어지는 건가? 그들에게 필요한 건 훈계가 아니다. 미안해하는 것과 위로가 우선이다.

5) IBS뉴스, <http://www.ibsnews.kr/news/18195>

발제 : 청소년과 흡연, 아직 얘기되지 않은 것들

청소년운동에선 흡연 의제와 관련해서 얘기해봤으면 하지만 얘기되지 않은 고민들도 있다. '청소년 흡연' 의제의 운동 방법적인 고민도 있고, '흡연 전반'에 관한 고민이지만 청소년운동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고민도 있다. 이런 고민들에 대해 청소년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보고자 한다.

담배회사에 대한 입장

미국의 한 담배회사에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훔쳐가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잡으려 하지 마라."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흡연자의 대다수는 10대 시절에 흡연을 시작하고, 청소년은 내일의 잠재적인 충성고객이기 때문이다.⁶⁾

담배회사들은 청소년을 마케팅해 달콤한 맛의 담배를 내놓기도 하고,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 눈에 띄는 LED 간판을 설치해 눈길이 가게끔 하고, 계산대 근처 간식거리와 함께 배치해 담배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물건처럼 보이도록 해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친숙하고 끌리는 제품으로 다가오도록 한다고 한다.⁷⁾ 그래서 금연 홍보하는 쪽에서는 "사악한 담배회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사실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유일하게 '욕망을 가진' 소비의 '주체'로 대하는 것은 기업이기도 하다. 거칠게 말해 청소년을 이놈, 저놈 누구야 하지 않고 '고객님'으로 깍듯이 대접하는 주체인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에게 있어서 청소년은 이윤 창출의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담배 권하는 담배회사'는 청소년에게도 비청소년에게도 그다지 좋은 주체는 아니다. 담배회사는 단순히 담배를 가공/제작/판매하는 주체가 아니라 소비층을 늘리기 위해 마케팅을 하는 주체이며, 담배가 엄연한 중독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매개로 한 판타지를 생산하여 자신이 담배를 피우겠다고 확고히 결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도 담배를 권하는 주체이다.

청소년운동이 흡연 관련 운동을 대외적으로 하다보면 담배회사와도 관련이 될 것이고, 담배회사에 대한 입장이나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이랬을 때, 청소년운동에선 담배회사를 청소년 담배 판매를 제재하지 않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 그것이 이윤 추구를 위한 행동이란 걸 비판적으로 봐야 할까?

담배의 권력적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

담배는 비청소년, 특히 비청소년 남성의 전유물로서 생각되어져 왔고, 비청소년 남성이 가

6) 네이버블로그, [금연서포터즈 스담스담] 청소년 흡연, 담배회사의 계획적인 범행일 수도
http://song_e89.blog.me/50123809900

7) 네이버블로그, 담배회사의 진실2. 청소년은 우리의 잠재 고객
<http://blog.naver.com/gkdisskql0531/220507548279>

지는 사회적 권력과 맞물려 담배를 피우면 스스로가 ‘그들’의 대열에 낀 것 같고, 그들이 누리는 권력을 나눠가지는 듯한 느낌을 위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다.

또,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보다 권력적 우위에 선) 비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그런 비청소년에 저항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분명 저항의 의미와 동시에 권력지향적인 의미 또한 가진다.

또, 담배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혹은 후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사람들이 담배를 할 때 나오는 그때만의 애기와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운동판에서 청소년인 활동가들은 사회적으로 담배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끼는 걸 스스로 포기하거나, 배제되기도 한다. 담배를 하는 것에 있어 비청소년인 활동가는 청소년인 활동가보다 권력적인 우위에 서는 것이다.

이렇듯 담배는 권력적인 이미지를 갖고, 권력적 우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담배가 가진 권력적 이미지와 우위에 끼기 위해 청소년도 담배를 하는 것이 방법일까? 담배가 그런 권력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청소년, 비청소년을 막론하고 담배를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것들이 있는 자리에서만 어떤 애기와 분위기를 공유하는 게 문제 아닐까. 담배 없이 그 때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는 힘든 건가?

담배가 아닌 다른 약물, 마약에 대한 입장

한국에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며, 제조·판매·사용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담배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담배사업법에 의해 제조, 판매, 수입 등이 제한될 뿐이다. 그러나 “담배의 중독성과 의존성은 다른 마약과도 같으며, 대마보다 심하니 담배도 마약 지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2012년에 담배사업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적이 있는데, 청구인들은 “국가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였으므로 담배사업법은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⁸⁾)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⁹⁾

이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흡연권은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고“, “흡연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흡연을 하고 있고“, “담배의 의존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흡연권을 향유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¹⁰⁾

각 측에서 ‘담배로 침해되는 국민의 보건권’과 ‘개인의 담배 필 선택의 자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청소년운동에선 국가가 청소년에게 건강할 것을 강요하고, 건강을 이유로 청소년을 통제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맥락은 담배가 아닌 다른 약물, 마약에도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담배와 마약은 묶여서 이야기되며, 청소년에게 담배가 금지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그럼 마약

8)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9) 2015년 4월 30일에 기각·각하로 판결.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하여 기각. 헌법재판소, <http://goo.gl/9mHgbe>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헌법재판소, <http://goo.gl/9mHgbe> ‘사건요지 - 변론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허용해야겠네?"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청소년운동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담배 연령 기준에 대한 입장

연령 기준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생각의 산물로서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 참여 등을 통제하는 데 활용되었다. 청소년운동은 이에 대해 투박하게 "19살 12월31일일 땐 미성숙하고, 20살 1월1일이 되면 성숙해지냐"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연령 기준으로 청소년에게 통제되는 권리들을 얘기할 때면 "그럼 몇 살부터 허용하자는 거냐"부터 "그렇다면 소년법도 같이 없애자" "지금 부과되지 않는 의무들도 같이 해라"와 같은 이야기까지 있어왔다.

연령 기준의 틀에 맞추면 사람들의 논의를 보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왜 주장하는 연령으로 연령 기준이 낮춰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매번 주장해야 하고, 주장하는 연령 미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성숙/미성숙의 잣대를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운동이 금지되는 것들에 대해 연령 기준의 틀에 맞춰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국가가 연령 기준에 맞춰 통제를 하는 것이 근대 국가에서의 방법이었고, 통제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논의를 통해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청소년운동에서 담배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연령 얘기는 꼭 나올 것이다. 그때, 청소년운동은 연령 기준을 수용해야 할까? 담배 피우는 데 어떤 기준·제한도 필요 없다고 해야 할까? 혹은 기준과 제한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필요한 걸까?

흡연여성이 경험한 잔혹사에 할 말 많은 비흡연자(심지어 혐연자) 루트의 변론~~

여성흡연에 대한 아주 일반화된 경고 : 여성의 흡연은 여성 고유의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임신 중의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향후 인구의 건강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터넷 금연사이트에 들어온 주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누군가 배란다를 엿보고 있는 것 같다’ ‘남편이 흡연 사실을 알면 끝장난다’ ‘시집에서 알까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해요. 흡연 여성에게는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여전히 ‘주홍글씨’가 새겨지고 있어요.”

별 것도 아닌 담배 하나 때문에 수난당하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은 한편의 코미디 영화를 연상시킨다.

- 담배를 피우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 : 담배는 권력의 상징, 남성의 전유물.여기에 대비되어 담배피는 여성은 이상한 여자들. 꼬부랑 할머니나 술집여자, 사연이 있는 여자(일테면 가슴앓이를 한다거나, 일찍이 남편 혹은 자식이 전쟁통에 죽어 그때 생긴 핏병 등등의 사연을 가진 이들).

- 기호품으로서 담배의 역사를 보면 파이프 담배와 시가 같은 것은 가진이들, 자본가들이 자신의 여유로운 시간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었다. 그러나 기계에 의한 대공장 노동이 일상화된 시대가 오면 쫓겨나 등장하는데 이것은 일하다 잠시 나와 후다닥 한 대를 몰래 혹은 급히 피워야 하는 노동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자본주의는 초기를 제외하고는 아동과 여성의 노동을 노동시장에서 퇴출한다. 그들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의해 유지되는 가족형태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가족 안에 유폐된다. 어디에도 담배가 여성에게서 멀어진 역사를 찾아보긴 어렵지만 짐작컨대 마치 부르주아들의 전유물이 시가와 파이프였듯이 남성 가정이 노동의 고됨을 달래는 아이템으로 자리한 것을 떠올려 볼 때, 이것이 이들과 여성/아동을 경계짓는 위계적 기호품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인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담배피는 여성은 유곽에 있는 기생, 유럽의 경우는 몸을 파는 여성이 대부분이다. 아동의 경우도 흡연하는 아동의 이미지는 이 시대 이후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초기 노동시장에 나왔던 아동노동자들의 흡연 사진은 종종 발견되곤 한다. (올리버 트위스트, 레미제라블 등)

- 한반도에서 담배가 전래된 초기에는 모든 계층이 피웠다. 담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초보다는 기호품으로 애용되었고, 나아가 손님을 대접할 때 차나 술 대신 담배를 권하는 풍습이 생기면서 연다(煙茶 : ‘연기나는 차’라는 뜻) 또는 연주(煙酒)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담배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담배피는 사람도 양반만이 아니라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평민은 물론 천민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남자는 물론이요 여자도 피웠다. 이와 같이 담

배는 전래되자마자 급속히 보급되었다. 효종대왕의 장인이면서 담배를 잘 피웠던 장유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담배를 흡연하는 것은 본래 일본으로부터 왔다. 일본인은 그것을 담바괴라고 하는데 그 풀은 남양(南陽)의 나라에서 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20년전에 비로소 전래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위로는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목동의 천인까지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는 1635년에 펴낸 『계곡만필』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전래된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목동의 천인까지 담배를 피운다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이 담배는 조선에 전래되자마자 급속히 전파되었다.

이렇게 당시 조선인들이 담배를 잘 피웠다는 사실은 외국인의 눈에도 기이하게 비쳐질 정도였다. 네덜란드인이면서 동인도회사의 상인인 하멜(Hamel)이 그러한 풍속을 기술하였다. 그 책에서 조선인이 담배를 매우 좋아했던 풍속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조선인들 사이에는 담배가 매우 성행하여 어린이들까지도 4,5세때에 이미 이를 배우기 시작하며, 그래서 남녀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처음 담배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은(銀)의 중량으로 이를 무역하였고, 그 이유로 (담배가 나는)남반국을 세계 가운데 가장 훌륭한 나라의 하나로 쳐다보게 되었다.”

즉 하멜이 보니 조선사람들은 4,5세때부터 담배를 배우기 시작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담배를 피우는 담배의 천국이었던 것이다. 당시에 담배값이 비싸서 은(銀)으로 무역할 정도였고, 담배를 생산하는 남반국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로 쳐다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분과 나이에 이어 성에 금기가 유겨 신분 사회의 서열이 철저히 관철되면서 일개 기호품에서 서열상품으로 탈바꿈한다.

- 흡연여성의 억압이 시작되었지만 ‘할머니와 새댁’, “열일곱 살과 마흔 살“처럼 여성 흡연에 대한 연령의 구분이 또 다시 잣대로 등장함. 갈수록 흡연이 나이든 여성, 기생들이 것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으나 개화기에 접어들며 신여성이라 불리는 이들이 출현하며 근대 여성의 심벌로 담배가 등자함. 자유연애, 인습타파, 남녀평등을 내세운 그들은 담배를 통해서 개성과 자유와 독립을 구가하려 했다.

1914년 12월 8일자 <조선연초주식회사> 광고는 삽화인데 주인공이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성이었다. 이 여성의 표정은 당당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이런 신여성이 주도한 흡연 유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식민지 조선에 담배를 팔아먹으려는 일제에 맞서 민족주의 물결이 워낙 거세지며 금연운동이 일어났다. 이제 흡연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마땅히 버려야 할 폐습’으로 여겨졌다. 여성 흡연의 대표주가인 기생까지 금연운동에 동참하며 흡연여성들이 위축되었다. 이후 다시 흡연 유행이 일어난 것은 625이후 기지촌을 중심으로 흔히 ‘양공주’라 불리는 성매매 여성들에 의해서 였다. 그로 인해 ‘담배=몸파는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었다.

- 1960년대 말, 70년대 초는 전세계 젊은이들이 자율주의 운동을 시작하고, 히피적 삶을 살고자했다. 이 시기 독재의 서슬 아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청통매(청바지/통기타/생맥주)는 숨통을 틔어주는 문화였다. 학생들에게 오직 허용된 것은 공부, 술과 담배.. 그러나 이것도 여성에게는 그나마의 자유에서 담배는 관습과 통념의 벽에 부딪쳐 금지품목이었다. 그 당시에는 담배를 피운다는 것 만으로도 거리를 지나던 남성들로부터 따귀를 맞을 각오를 해야했다. 이러한 모습은 90년대 말까지 이어졌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조금씩 덜 보이더니 이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그 중에서도 청춘과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는 거의 드문 현상이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 소도시, 혹은 중장년의 남성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성들은 편하게 담배를 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여성 “낮에는 요조숙녀, 밤에는 요부”이길 바라는 이종의 남성들의 욕망은 담배피는 여성에 대한 시선에 그대로 녹아 있다. 섹시함만 요구되는 가벼운 대상으로 여기는 여성에게 흡연은 허용되지만, ‘내 것’의 대상으로 보는 여성의 흡연은 극단적으로 기피한다.

- 흡연하는 여성을 비난한 한 블로그의 글

'이봐요. 된장녀, 김치녀, 성괴녀야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까 이해하는데. 담배는 어디까지나 개인 기호이고 취미예요. 왜 내가 내 돈으로 담배 사서 피는걸 갖고 뭐라 하세요?'

네. 당신이 당신 돈으로 담배 사서 피는걸 갖고 남이 뭐라 하면 짜증이 많이 나시겠쥬. 그런데 당신이 담배를 피우면 일단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당신 옷과 머리에 담배냄새가 배면서 당신이라는 여성에게서 좋은 향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주고, 당신의 치아가 담배진 때문에 누렇게 변색되면서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쥬. 그 뿐일까요. 당신에게 남친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운다면 식당에서 남친과 식사할때 당신이 이따금 흡연장소로 갈때마다 당신의 남친은 혼자 하릴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쳐다봐야 하고, 당신을 차에 태우고 어디 놀러갈때마다 '이 차에서 담배 안피웠으면 좋겠는데. 피울거면 담배재는 밖에 털어.' 이런 말을 해야하고, 결정적으로 분위기 잡고 당신과 키스하려는데 당신 입에서 나는 담배냄새 때문에 얼굴을 찡그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몇 년엔 나왔던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가 떠오른다. 여성이 흡연하다 첫키스하는 날 남친에게 차이는 내용을 담은 광고.. 아, 얼마나 현실반영을 한 광고란 말인가. 헐~

이 글을 쓴 이를 포함하여 사실상 대다수의 남성들은 “담배피는 여성= 자기 절제가 안되는 여성 = 자기 인생에 비전이 없는 여성 = 인생 막 사는 여성 = 쉬운 여성”이라는 등식을 정답으로 가지고 있는 듯 하다.

'A가 담배를 피더라구.'

'헐. 너 보는데서 담배를 핀단 말이야? 와! 개 그렇게 안봤는데.'

'몰라. 내가 슬쩍 불쾌하다는 싸인을 보냈는데도 계속 피더라구.'

'혹시 너랑 만나기 싫어서 그러는건 아닐까? 내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런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담배 핀지가 좀 오래된 애인거 같애.... 아. 어떡하지. 담배 피는 여자 싫은데....'

'개 어렸을때 좀 막 살은거 아냐. 가출도 몇번 했다든지.'

'모르지 뭐. 그랬을수도 있지.'

'낙태는 안해봤을까. 그런 애들 그런 경험도 많을거 아냐.'

'글쎄.'

'니가 A를 어디서 만났지? 아.... 너 개 클럽에서 만났다고 했지? 거봐. 그런 애들이 뻘하 다니까. 야. 더 볼 것도 없다. 니가 진지하게 사귄 애는 아닌거 같다.'

'그럼 어찌지?'

'뭘 어찌긴? 답이 뻘하게 나오잖냐. 그냥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버려.'

- 흡연여성 폐암확률 남성의 2~3배 ; 이것은 진실일까.. 담배 한 대 안피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면 가사노동 특히 주방에서의 생활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연구가 있음에도 이것은 가끔 언급되고, 사람들은 우선 여성이 폐암이란 진단을 받으면 '흡연'가능성부터 의심한다.

- 담배라는 아이템의 이미지 : 술과 달리 담배는 더욱 더 일탈을 향한 본능적 욕망, 금기에 저항하는 자유의지로서 인식된다. 자기에 대한, 자기 선택에 대한 주저없는 긍정, 사회가 강요하는 어처구니 없는 편견을 걷어내는 단호한 못짐으로서의 해방적 이미지.

- 여성 흡연을 막는 진짜 이유 :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으로도 모자라 위수령을 선포한 이듬해라 사회 전반이 얼어붙어 있었죠. 그때 담배는 제가 순종적인 여성이 아님을 드러내는 포식이었고, 남자들에게 내지르는 주먹이었죠.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깃발 같았다고 할까요.” (흡연여성잔혹사)

진짜 흡연 여성 잔혹사는 집 밖에선 준비했다. 여대생들은 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가 남자들한테 린치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수도룩 하다.

“술집에 있던 몇몇 남학생들이 ‘감히 여자들끼리 모여 담배나 피워대느냐?’며 제 친구 얼굴을 향해 술잔을 집어던졌어요. 제 친구는 말 한마디 없이 빈 술잔에 술을 따랐고 문제의 남학생들 쪽으로 가서 그들의 머리 위로 골고루 술을 부어주었죠. 그때부터 남자들의 무지막지한 폭행이 시작되었고 술집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 군사정권과 가부장제 문화가 결합된 가장 보편적인 여성 탄압 사례예요. 그때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군림하던 때였으니까요. 더군다나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

각되는 담배를 여자들이 피우니까 폭력적으로 돌변했던 것이다.

히틀러가 지배했던 독일에서도 “독일여성은 담배를 피우자 밀 것”이라는 경고가 나뉘었다. 미국도 2차 대전 기간에 여성이 흡연하는 장면을 가급적 화면에 담지 말라는 할라우드 제작자들에게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

- 흡연은 특수 직업의 많이 배운 여자들이 피우는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알아서 몸을 사리고 통념과 습사리 타협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들키면 잃을 것이 많은 여성일수록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또한 높다.

- 80-90년대 여성운동에서 담배는 평등을 추구하는 남성사회를 향한 저항의 아이템. 그러나 한편에선 남성과 같은 주류이고자 하는 여성들을, 마초타입의 여성들에게 담배는 남성과의 동일시(여성의 지위 향상) 아이템이기도 했다.

-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금지는 보호주의, 사회적 위치성을 잘 반영한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에게는 하나 더 ‘성적 대상화’의 이미지로서 담배피는 여성에 대한 시선이 담겨진다.

- <담배는 숭고하다>를 쓴 리처드 클라크 코넬대 교수는 “ 한 사회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 흡연권을 누리고 있는가는 보편적 평등의 지표이자 시민사회 내에서 여성이 전임 회원인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여성흡연이 자유롭지 못한 한국사회는 여성은 이 사회에서 국외자/소수자/비회원인 셈이 아닐까.

“여학생에게 담배를 권하기는 고사하고 그걸 갖고 있다는 이유로 따귀를 날렸다. 그걸 맞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 땅에서 남녀는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를, 여자가 이땅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그건 뺨의 통증보다 더 쓰라린 깨달음이었다”